



조간 제798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음력 10월 27일)

## “SK·삼성,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민주당 호남특위, 신설 최적 부지 2곳 추천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첨단3지구’ 제시  
이병훈 “정부,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필요”

정부가 광주를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국내 반도체 앵커기업 유치에 위해 광주 빛그린산단·미래차 국가산단과 첨단3지구 등 2곳을 반도체 공장 신설 최적지로 공식 추천했다.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인구 유출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반도체 기업의 광주 유치”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공장 후보지로 광주·전남 합령 접경지인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과 광주와 전남 장성이 맞닿은 ‘첨단3지구’를 최적지로 제시했다.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은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인공지능(AI) 모빌리티와 연계해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고, 첨단3지구는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와 연계해 첨단 패키징·반도체 R&D 특화 거점 조성이 용이한 점이 장점이다.

이 부위원장은 반도체공장 유치의 필요성으로 ‘절박함’과 ‘당위성’을 들었다. 광주 인구가 139만명까지 줄었고, 지난 10년간 청년 4만4000명이 광주를 떠난 점, 지난해 순유출 인구의 73%가 청년층인 점을 들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수도권과 달리 지정학적으로 안정됐고,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수량이 풍부하고, 반도체

인력 수급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AI국가 데이터센터와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등 기반시설과 연구·교육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고, 산업용지 또한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건립, 반도체 인력 양성과 R&D 확대 지원, 반도체 연합공단 구성, RE100 산단 지정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상이

공개됐고, 광주와 부산, 구미가 핵심 거점으로 언급됐다”며 “필요성과 여건을 두루 갖춘 광주·전남에 삼성과 SK, 중소 앵커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울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 및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광주를 ‘반도체 첨단패키징(후공정)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 생태계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추진키로 하고, 광주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등 지정, 칩 제조-패키징 기업의 합작 팹 건립 지원, 반도체 연합공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통해 광주과학기술원에 ‘암(Arm)스쿨’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2030년까지 5년간 반도체설계 분야 전문인력 14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은 인공지능(AI) 등 고성능 반도체 제조의 핵심기술로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데이터처리 고속화, 소형화, 저전력화 등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尹,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사건 249건 접수·27명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검사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계엄의 목적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9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남부 각 군사 긴장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복합을 도발하는 등 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여 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

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249건의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고, 미처리된 나머지 34건의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인력을 재편하여 기소된 27명에 대한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금까지 기소한 인원은 총 27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 방해(7월), 일반이적(11월), 위증(12월)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웅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6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치인 3명이 기소됐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15일 전남 장성 남면에 열린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중 장성군수 등 주요인사들이 착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장성 남면 첨단 3지구에 들어서는 전남 제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라 체결된 첫 업무협약(MOU)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총 3959억원을 투입해 26MW급 데이터센터 1기를 우선 구축하고, 향후 60MW급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장성서 첫 삽…AI 산업 본격화

파인데이터센터 26MW 규모 착공, 2028년 가동 목표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첫 결실…AI 생태계 확장 기대

전남도가 장성에서 도내 첫 데이터센터 건설에 들어가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전남의 AI 산업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남도는 15일 장성 남면 첨단 3지구에서 전남 제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 파

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고, 인공지능(AI)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섰다.

이번 착공은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라 체결된 첫 업무협약(MOU)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중 장성군수, 중앙부

처 관계자, CJ올리브네트웍스, 현대차증권, 대우건설, 파인애플트리스자산운용(㈜ 참여기업 대표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총 3959억원을 투입해 26MW급 데이터센터 1기를 우선 구축하고, 향후 60MW급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발표 이후 체결된 첫 업무협약 사례다.

전남도는 2023년 업무협약 이후 투자사와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행정 지원을 지속했다. 그 결과 산업

단지 환경개선 펀드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민간 투자사와 임차사 모집에도 탄력이 붙었다.

센터는 2028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3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빅테크 기업의 전남 유입과 함께 데이터센터 구축 문의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지역 산업에 맞춘 AI 전환과 AI 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권역별 AI 혁신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2면에 계속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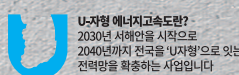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 한 줄의 해답, 대한민국을 잇다!

대한민국 미래에너지를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국전력이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1.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한한 에너지 : 재생에너지
2.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 : 지역균형발전
3. 멀리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기술 : 초고압직류송전
4. AI시대 핵심 국가첨단산업 중 하나 : 반도체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